

중국발 물량 공세에 나프타대란까지... '벼랑 끝' 여수산단

“참담하죠” 중동의 포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1일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수입 석유를 ‘산업의 쌀’인 나프타로 가공하는 NCC 공장이 주를 이루는 산단의 분위기는 벼랑 끝에 선 듯했다.

중국발 석유화학제품 물량 공세와 이에 따른 산업계 구조조정 예고로 타격을 입은 산단에 호르무즈 해협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업계는 만신창이 같은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산단내 1·2공장을 합쳐 연간 에틸렌 등 200만t(1공장 120만t·2공장 80만t)을 생산해오던 LG화학은 최근 채산성 문제로 2공장 가동을 잠시 중단하게 됐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각 공장의 가동률을 상시 4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대란으로 2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LG화학의 추산대로라면 이달까지는 여수산단 1공장과 대산공장 내 자체 보유한 나프타의 재고를 통해 에틸렌 등의 정상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일정에 따라 향후 생산량을 다시 가능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화학은 예정되었던 여수산단 내 NCC 공장 정기보수 일정을 나프타 대란 시기에 맞춰 앞당겼다.

공장 가동을 오는 5월 말까지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숨을 고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늦춰질 경우 비축한 나프타의 양에 따라 공장 가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업계 전반으로는 이달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수입처를 다각화하더라도 나프타 주 생산 국가가 쿠웨이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중동국가인 만큼 현재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나프타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 /뉴스시스

호르무즈발 비보에 석유화학 업계 “만신창이”

LG화학 4월까지 에틸렌 정상 생산 후 ‘안갯속’

롯데케미칼, 호르무즈 정상화 지연시 운영 차질

민주당도 현장답사... “추경 반드시 통과” 약속도

업계 관계자 A씨는 “라면봉지부터 자동차 내장재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나프타가 쓰이는 만큼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업계 전반은 물론 일상생활의 마비 우려와 직결됐다. 당장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더라도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수개월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중국발 석유화학제품 물량 공세에 밀린 데다 이에 따른 산업부의 석유화학산단 구조조정 지시로 일부 기업들은 이미 회망퇴직을 받고 있

다”며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까지 겹치며 4중, 5중고에 직면한 여수산단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문제 해결에 기틀 수박이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 하루빨리 모든 게 정상화될까 바란다”고 호소했다.

나프타를 전략 비축 물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씨는 “석유는 비축물자로 지정·관리 받아오고 있지만 나프타는 그렇지 않다. 이번 중동사태로 나프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가 알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전략물자로 지정해 일정량을 비축해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수국가산단내 여천NCC에 원내대표단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를 파견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한편, 산단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추경안 통과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천 NCC가 (공장) 가동률을 80%대에서 60%대로 낮추고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에 동맥이 막히고 있다는 위협 신호”라며 “실적 1조원 규모의 수출 정책 금융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번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약에 참여한 기업 중 실

광주시, “청년·청소년 바른일터 찾습니다”

노동법·인권준중 사업장 발굴·지원... 4월부터 상시 모집
인증사업장엔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종량제봉투 제공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준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

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



제로 청년·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 (062-951-1981)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의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

노동부 ‘사업주 지원금’ 연계 근로자 본인에 최대 200만원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70여명 모집... 외국인근로자 포함

광주광역시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 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무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 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

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사업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전남도,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할인쿠폰 2만2천장 분다

8~30일 진행... 선착순 발급·연박 최대 7만 원 할인

전라남도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 불펜’에 참여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숙박세일페스타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여행 수요 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숙박 할인 지원사업으로, 전남도는 올해 총 2만 2천 장의 할인쿠폰을 확보해 불펜·가을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숙박세일페스타 불펜은 지역 호텔,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할인 혜택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예약 시 2만 원이 적용되며, 연박(2박)의 경우 최대 7만 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쿠폰은 여기어때, NOL, 11번가, G마켓 등 7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1인 1매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공식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해외유학생 지원사업 도전하세요

28일까지 접수... 명문대 박사과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

전라남도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글로벌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세계 명문대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전남도 해외유학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유학생 지원사업은 해외 명문대 박사과 석·박사 통합과정 유학을 지원해 지

역 산업 경쟁력을 이끌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부모가 2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남지역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다. 전남도 전략산업 관련 이공계열 전공자로 학업성과와 외국어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접수하며, 서류와 역량평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전공 분야 전문성과 발전 잠재력, 지역 공헌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외에서 역량을 쌓은 인재가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114K COT, SOVCOMFLOT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